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협서 밝혀...22대 국회 최대 화두
제주·세종·강원·전북 이어 5번째...지방 소멸 극복 특단의 대책 필요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자원 자치권한 확대할 것”

전남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경우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남지역 당선자 8명도 적극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혀 22대 국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전남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이 지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0여년 만의 시도인데다 그로 인한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한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사실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부여된 시·도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등 4곳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 지역 성장동

력 육성에 필요한 관련 특례를 인정받은 뒤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가 특별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특례 조항은 ▲무안 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MW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업 허가 ▲내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7가지로, 특별법을 통해 관련 특구 지정 지위와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을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높여겠다는 의도다.

전남 인구는 4월 말 기준 179만 7199명으로 180만이 무너진데다, 16개 시군이 전국 최다 인구감소 지역에 속하고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에 이르는 등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GRDP 유출(88조원 중 21조원) 등도 심각한 데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부산·인천 및 강원·전북 등도 지역의 차별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특별법과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미래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22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관련법 발의 및 통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당선자들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의 위기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절박한 과제로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무각사 붉은 연등 속에 핀 ‘백련’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8일 오후 광주 서구 무각사 대웅전 앞마당이 순백과 붉은 연등들로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무각사에 설치된 재독작가 김현수씨의 ‘백련(白蓮)’은 지름 5m 50cm, 높이 2m 40cm, 18개의 꽃잎으로 이뤄진 대형 조형물로 대웅전 앞마당 공중에 내걸린 수백 개의 붉은 연등과 어우러져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北·日, 제3국서 정상회담 조율...한국과 사전 협의해야”

박병석 전 국회의장 “수차례 만나 사전협의 없으면 한일관계 악영향”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8일 일본이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과 일본이 아시아 제3국에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전에 한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영 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전 의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전혀 의외의 곳에서, 제3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중국 베이징과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등 과거 교섭을 위해 만나왔던 장소가 아닌 아시아 제3국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전 의장은 “북일 교섭 관계를 투명하게 하거나 (일본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일 교섭을 지지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교섭을 부탁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전달하

고 피드백도 했다”고 전하면서 일본은 이번 북일 정상회담 추진도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남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추진하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국산 KF-21,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AIM-2000’ 실사격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8일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이로써 보라매는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KF-21 공대공(空對空) 무장(Meteor, AIM-2000)

유도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한 뒤 12시 47분께 복귀했다. 이로써 보라매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연합뉴스

5·18 부실조사 내용 바로잡아야 ▶6면

KIA 정해영 “난 돈보이면 안 된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동해 무릉담빛 호소소길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세계로 우뚝하는 데도약! 전남 행복시대

지구를 위한 선택, 청정수소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H₂